

# 삼원적 구조로 본 상수역학 체계 - 四象 · 五行 · 六氣를 중심으로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Asian Image-mathematics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ree Category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t has been known that Asian Medicine theory are based on yin and yang & Five Phases. but recently many therapist using asian medicine in Korea or another nations, take up the position that it is not inevitable for them to adopt the theory of yin-and-yang & Five Phases when they cure a patient. but the point of this view suggests they can not understand totally the real theory about yin-and-yang & Five Phases. asian image-mathematics based on I-Ching could analysis all things with the natural number. the kernel of understanding on principle of I-Ching is realizing that the standard should be changed in some conditions and the form of cosmos should change endlessly. the system of all thing under sun is divided in three parts on the asian image-mathematics. the nature number from one to nine is divided in three categories that are grouped as 123, 456, 789. So, if we want to understand Five Phases theory, we suggest that it is useful to know the organic connected relations among Four Images, Five Phases, Six Qi(six kinds of weath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rive at understanding of profound learning on image-mathematics throughout the number of 4, 5, 6 in the concrete context.

Key words : Asian image-mathematics(象數學), Four Images(四象), Five Phases(五行), Six Qi(six kinds of weather)(六氣), I-Ching

### 서 론

한의학의 기본적 이론은 보편적으로 음양오행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양오행에 삼라만상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는 건 강부회식 시도가 만연해지다보니 그 원리와 가치가 훼손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음양오행원리 자체를 배제하고 임상을 하고자하는 흐름마저 생길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五行을 단순히 데카르트식 분석주의로 도식화하면서 생긴 결과로, 전통적인 역학의 장점인 體用變을 사용한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五行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五行의 전후에 있는 四象과 六氣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四象 五行 六氣는 셋이지만 사실 하나로 아우러져 있다. 숫자는 1에서 9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므로 四象

에서 五行으로, 다시 五行에서 六氣로 발전하는 이치를 상호 유기적으로 알아야 한의학의 주요 원리인 五行을 통한 실제 임상적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고는 이런 주장에 밑받침이 될 一에서 九까지의 상수학적 체계를 三元的 구조로 분석하고 四象과 五行, 五行과 六氣의 변화와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 본 론

#### 1. 상수역학 구조의 체계

象數의 용어는 周易에서 기원한다. 주역의 사상은 크게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대별되는데, 象數易이란 세상만물을 象數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지구상의 事物을 상수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만물을 數로써 파악할 수 있다는 동양 철학의 논리가 이전엔 난해하게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바코드와 이진법의 컴퓨터가 생활화 되면서 전보다 이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bsoo25@dju.ac.kr, · Tel : 042-280-2616

· 접수 : 2007/08/12 · 채택 : 2007/09/06

1) 廖名春 외.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47, 1998.

해하기가 수월해졌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깨달은 후 세상이 모두 數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장면은 더욱 象數學을 현실감있게 만드는 장면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체계는 규칙적이면서 혼합적인 조직이 필요한데, 필자는 삼원적 구조로 그 체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1) 無에서 有로

상수학으로 우주를 바라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無에서 有가 나오는 부분일 것이다. 無에서 有가 나오는 과정을 종교계에서는 신학으로 설명하지만 역학에서는 河圖의 이치를 위주로 설명을 한다<sup>2)</sup>. 특히 金一夫는 천지창조에 대하여 하도의 중심에 있는 一太極 五皇極 十無極의 三極說로 설명을 하고 있다<sup>3)</sup>. 이는 우설<sup>4)</sup>이 주장하는 '3수 분화 세계관'의 진화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동이족 시베리아 사머니즘에서 신령계의 전달자 또는 매개자로서의 새와 삼족의 변형이며, 삼족오의 마지막 변형이자 3수 분화 세계관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변형이 '삼태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의 역동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된다.

無에서 有로 발생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0에서 1로의 발전이다. 하나(一)라는 의미는 최초의 一과 최대의 多[모든 것]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한'이란 의미 역시 하나(一), 여럿(多), 닮음(如), 가운데(中), 비결정(或)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sup>5)</sup>. 즉 1은 최초의 하나, 박백[一太極]을 설명하지만 우주 전체, 코스모스[十太極]를 설명하기도 한다. 우주의 태초[一]와 전체 우주[十]는 같은 것이면서 다르다는 설명은, 이전의 주립계가 『太極圖說』에서 "無極而太極"이라하여 언급을 하였지만 그 우주의 발산 수렴 운동을 유지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一夫의 皇極 개념이 나오면서 완성이 되었다<sup>6)</sup>. 즉, 우주의 기원을 말해주는 一太極은 사실 無極 太極 皇極의 三太極으로 정리가 된다. 이는 사물의 구조와 운동 패턴을 인식하는 기틀을 三元의 구조로 정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증이 될 것이다.

2) 二分法에서 三分法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표적인 틀은 대비와 대조이다. 하나로는 비교 판단이 되지 않기에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사물을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것이다. 철학에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인체에서는 정신과 육체, 자연계에서는 이론과 현실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성리학에서는 이를 理와 氣 또는 體와 用으로 설명을 하였고, 道學에서는 性과 命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양철학에는 性理學과 命理學이라는 용어가 있다. 전자는 유교의 고차원적인 우주를 이치로 논하는 학문으로 性을 밝힌 것이고, 후자는 흔히 점을 본다는 四柱命理 등의 용어로 민중과 시장바닥에서 현실에 부응하는 命을 밝히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는 이러한 二分的 사고 체계를 陰陽 이론으로 본다.

더 나아가면, 러셀역설에서와 같이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재는 항상 역설적이기에 이 兩者를 공명하면 제 3의 홀로그램이 발생한다<sup>7)</sup>. 이를 동양적 용어로 보면 天地人 三才法 또는 三元의 구조로 볼 수 있다. 즉 고대로부터 동양인들은 性命雙修를 주장하였다. 이론과 실재가 부합하여야 하고, 이상과 현실이 합일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일은 반드시 兩端 사이에 왕래가 필요하고 이러한 왕래로 妙<sup>8)</sup>한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한다. 여기서 이 새로운 에너지를 포함하여 삼원적 구조를 갖추게 된다. 二分法의 陰陽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 등의 역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三分法인 삼원 구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셋은 다시 하나로 합일하고, 이러한 三一 사상은 동아시아 사상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9)</sup>.

易學에도 三易이 있다고 한다. 變易 不易 簡易이 그것이다<sup>10)</sup>. '簡易'은 간단한 사실을 근거로 복잡한 것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즉 數와 象의 원리를 파악하여 우주의 모든 사물을 이에 귀속시키면, 그 변화가 아무리 복잡한 우주의 원리라 하더라도 간략히 파악할 수 있다<sup>11)</sup>. 역학의 象數의 이론을 통하여 실재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고 미처 몰랐던 것을 더 넓고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상수 체계를 본 논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三才를 통한 123 456 789의 유기적 접근

象數易學은 河圖·洛書 先天八卦·後天八卦를 근간으로 象數로써 삼라만상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다. 象이란 것은 物이 자체의 내용을 幾微로서 표현하는 것이며, 數는 象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현상계에서 形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象이 있고 象이 있으면 數가 있기 마련이다<sup>12)</sup>. 그 數는 1-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데, 10은 완성수로 사용하지 않고, 운용상에서는 1에서 9까지의 數理를 갖고 萬象에 應하게 된다<sup>13)</sup>. 數의 시작은 1에서 2, 3, 4로 전개된다. 즉, 그 수의 발생은 一太極에서 시작하여 二陰陽 三三才로 발전하고, 나아가 四四象, 五五行, 六六氣로 진화한다. 계속하여 七七情, 八八卦, 九九宮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1에서 9까지의 數理로 萬象을 살펴보는 방법에는 이전에도 있었다. 한규성<sup>14)</sup>은 "1은 生命의 주가 되고, 2는 生命의 對立이 되며, 3은 生命의 段階를 이루고, 4는 生命의 分派相을 내며, 5는 生命 變化의 役이 되고, 6은 그 變化의 節도가 되며, 7은 神의 用이 되고, 8은 八象의 分別을 내며, 9는 物心兩面の 綜合의 作用이 되고, 10은 調和의 役이 된다."고 하였고, 김완희<sup>15)</sup>는 "1 태극은 造化의 根本(全一), 2 陰陽은 造化의 前提(待對), 3 天地人是 造化의 作用(統一)이며, 4 四象은 構成의 分立, 5 五行은 變化의 基本, 6 六氣는 象化의 節度이고, 7 七曜 또는 七情은 神의 用, 8 八卦 또는 八識은 八象의 分別, 9 九宮 또는 九變은 象化의 綜合의 作用, 10 無極은 造化의 役이다."라고 하였다. 1에서 9

2) 김병수. 하도와 러셀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583-590, 2007.  
 3) 正易에서 '十五一'이라 하여 삼극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無極, 太極 등의 단어는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三極 思想을 하도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설명한 것은 一夫가 처음이라고 사료된다. (저자주)  
 이정호. 정역연구, 국제대학부설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서울, 52-56, 1976.  
 4) 우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서울, 소나무, 140, 1998.  
 5)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서울, 지식산업사, 142, 2005.  
 6)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292-295, 1990.

7) 김병수. 하도와 러셀 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583-590, 2007.  
 8) 율곡은 理氣論을 理氣之妙라 표현하였다.  
 9) 우설하.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 서울, 소나무, 229, 2005.  
 10) 양력. 주역과 중국의학 상. 서울, 법인문화사, 266, 1993.  
 11) 양력. 주역과 중국의학 상. 서울, 법인문화사, 267, 1993.  
 12) 김완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 59-60, 1991.  
 13) 김완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 56, 1991.  
 14)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202-203, 1989.  
 15) 김완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 59-60, 1991.

까지의 명칭도 약간씩 다르고 각각의 분화도 조금은 다르지만 1에서 9까지의 數로서 萬象에 응하는 것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 다양한 지식들은 유기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집약이 되어야만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입체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되는데, 역학에서는 이를 '簡易'라 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간략하게 손에 잡혀야 배우는 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老子는 『道徳經』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 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법칙을 一二三의 順으로 설명하였다<sup>16)</sup>.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중국이 二法 문화가 발달 되었다면 한국은 三法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sup>17)</sup>, 이 때 三法 문화는 圓方角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河洛羲文의 원리에 근거하는데 그 구조와 운동성의 패턴은 天地人 三才로 분석이 된다<sup>18)</sup>. 따라서 一二三四五六七八九도 세 등분으로 나누어 一二三, 四五六, 七八九의 三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三分하는 것은 획일적인 三分이라기 보다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縱橫의 의미에서 一四七, 二五八, 三六九의 묶음으로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表 1. 象數學의 三才構造

	體	相	用	도구
天 本體論	一 太極	二 陰陽	三 三才	數
地 實相論	四 四象	五 五行	六 六氣	干支
人 認識論	七 七情	八 八卦	九 九宮	卦

김<sup>19)</sup>은 一二三是 基本數가 되고 四五六은 그 變化數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여 필자는 一二三是 근본적인 '本體論'을 설명하고, 四五六은 현실 세계, 객관적인 세계의 '實相論'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七八九는 인식의 세계 주관적인 세계인 '認識論'을 설명한다고 보았다(表 1). 이상은 表 1의 가로에 해당한다. 表 1의 세로를 분석하면 147은 體, 258은 相, 369는 用에 해당한다. 體相用은 원래 불가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體用이란 단어로 주역에서 알려져 있다. 주역에서 體用을 처음 사용한 이가 王弼인데 왕필이 불가 화입경의 體相用<sup>20)</sup>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大乘起信論』에 나오는 三大는 體大는 본질의 위대함으로 法身佛이라 하고, 相大는 현상의 위대함으로 報身佛이라 하고, 用大는 활용의 위대함으로 化身佛이라 한다. 이는 三位一體화한다. 즉 三大은 三身佛 사상과 맞먹는 것이다<sup>21)</sup>. 象數體系에서 147은 體가 되며, 258은 드러나 相이 된다. 369는 이들의 運用이 된다. 즉, 本體論에서 太極[一]은 體가 되며, 陰陽

은 드러나는 相이 되고, 三才는 用이 된다. 實相論에서는 四象이 體가 되며, 五行은 드러나는 相이 되고, 六氣는 用이 된다. 認識論에서는 七情이 體가 되며, 八卦가 드러나는 相이 되고, 九宮이 用이 된다.

각각의 象數 단계는 앞의 것을 포함한다. 즉 陰陽은 太極을 포함하고 三才는 陰陽을 포함하며 四象은 三才를 포함한다. 다시 五行은 四象을 포함하고 六氣는 五行을 포함하며 七情은 六氣를 포함한다. 또한 五行을 예로 들면, 五行은 四象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太極 陰陽 三才 四象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상수학의 삼재구조(表 1)'를 살펴보면 한의학에서 주로 설명하는 陰陽과 五行은 八卦와 더불어 드러나는 '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性理學에서 말하는 四端과 七情은 一 太極과 더불어 본체인 '體'에 해당하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五運六氣는 實相論에서 '相'과 '用'의 관계이며, 八卦는 七情을 '體'로 하여 드러난 '相'임을 알 수 있다.

宇宙는 太極(一)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九宮까지 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태극(一) 자리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공부하는 자는 다시 거꾸로 九宮에서부터 인식을 시작하여 역순으로 점진적으로 太極까지 연구를 하여야 우주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삼원적 구조

### 1) 本體論: 一二三

邵伯溫은 『語錄』에서 “천지만물은 1을 근본으로 하지 않음이 없다. 1로부터 늘어나 천하의 온갖 사물들을 다 만들어 내지만 다시 1로 돌아가고 만다.”<sup>22)</sup>라 하였다. 一 太極은 만물의 시초이며 동시에 만물이 분열한 우주 전체를 설명한다. 절대자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삼태극 사고로 보면, 이미 一 太極에는 無極 太極 皇極이 내포되어서 3배수로 확장될 정보를 갖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논하여 보면, 하나(一)는 하나의 수량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전체와 太極을 나타내는 수이다. 음양의 이치에서 보면 하나(一)는 아무 수와도 섞이지 않은 純陽의 수이다. 또한 최초의 수이므로 하나에서부터 모든 사물이 생겨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신화에서 하나인 신은 전지전능한 완전한 존재이다. 여러 건국신화에서 시조는 하나뿐이다. 상징적으로 완전, 충분한 양, 시작, 근신, 아버지, 고립, 동일함, 적음, 귀중함 등이 있다<sup>23)</sup>.

그는 陰陽으로 표현되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나와 너, 낮과 밤 등 서로 상대되는 것을 설명한다. 부호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적용된다. 절대와 상대, 동양과 서양, 인문학과 자연과학, 성공과 실패,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등 모든 분야의 二分法이 가능하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둘(二)은 하나(통일)에서 출발한 최초의 수이자 최초의 음수이며 純陰의 수로서 음과 양,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이 둘이 짝지어 하나가 된다는 대립과 화합

16) 김경탁. 新譯 老子, 서울, 현암신서, 207, 1978.

17) 김병수. 하도와 리셀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 21(3):583-590, 2007. 이밖에 우상하의 2수 분화 세계관과 3수 분화 세계관을 참조하길 바란다. 우상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서울, 소나무, 11-13, 1998. 우상하.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 서울, 소나무, 181-291, 2005.

18) 김병수. 하도·낙서·선천팔괘·후천팔괘의 상호 유기적 관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2):379-386, 2007.

19) 김원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 61, 1991.

20) 『大乘起信論』 “三大 體大 用大 相大”

21) 김영호. 원효의 대승철학. 서울, 소나무, 394, 2006.

22) 양력. 주역과 중국의학 상. 서울, 법인문화사, 266, 1993.

23) 리영순. 동물과 수로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훈민, 195-206, 2006.

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상징적으로 대립, 화합, 혼돈, 평형성 등의 의미가 있다<sup>24)</sup>.

三是 天地人 三才로 설명하는데, 三才는 세 가지 근본이라는 뜻이다.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적용하는데, 군대의 육군·해군·공군, 물질의 액체·고체·기체 등 삼원적 구조에 적용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精氣神, 天時·地方·人事 등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一肢에 각 三節이 있음과 신체를 頭, 軀, 幹 三體로 나누는 것은 모두 3의 理이다<sup>25)</sup>.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셋(三)에 대한 관념은 우리 민족의 심층 의식에 뿌리 깊은 바 우리 민족의 이런 수 관념은 고조선의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서 '셋'은 특별한 수이다. 먼 옛날부터 '셋'은 吉數 또는 신성수라 하여 최상의 수로 여겨 가장 친근하게 사용되어 왔다. '셋'은 음양의 대립에 '하나'를 더 보탬으로써 신화에서는 완성과 완전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신화의 세계관은 天, 地, 人과 같이 셋으로 구분된다. 즉 천지인 셋은 신화의 세계를 이루는 요소로, 天은 신의 세계인 하늘을, 地는 만물이 생존하는 지상을, 人은 하늘과 지상 사이에서 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각각 나타낸다.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의 시조신인 천상계의 신인 환인, 신과 인간 세계를 오가는 환웅, 환웅의 아들로서 인간인 단군이 삼위 일체적 존재로 그 신성함을 더하게 된다. 이들 三神은 셋이면서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三—神적 인식은 셋은 곧 완성된 하나로서 완전한 존재임을 강하게 시사해준다<sup>26)</sup>.

老子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 하여 하나(One)를 一元的 氣(太極)로 보고 2(Two)는 陰氣와 陽氣로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陰氣와 陽氣에서 和氣가 생겨서 三氣의 和合으로 말미암아 萬物이 생성된다고 보았다<sup>27)</sup>. 이에 三生萬物이 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沖和之氣가 필요한데 이 三은 생명을 말한다. 즉 一은 理요, 二는 氣이며, 三은 命에 해당한다.

모든 시작은 太極(一)에서 시작하여 體가 되고 一은 둘(二)로 분화되어 보여진다[相]. 음과 양, 천과 지는 서로 교통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귀는 用[用]으로 생명이 탄생한다. 따라서 一—二 三은 體相用으로 셋이면서 하나이다.

性理學과 命理學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性理는 太極(一), 理氣(二, 陰陽)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生命(三才法)에 대한 이해와 현실 참여가 부족하여 원리연구와 형이상학적인 관점이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 즉 三才法이 없어서 현실에 무능한 면을 보였다.

고대에 命理에 실력이 뛰어난 자들은 죽을 때까지 궁중 안에만 있어야 했다. 명리학자가 너무 많은 핵심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命理學의 이치가 전반에 나타나지 못하고 비전과 비밀로 전해졌다. 즉 명리는 命(생명 三)과 氣(二)를 위주로 대중에게 인정을 받았으나 현재의 명리학은 本體論의 기본 원리(一)가 빠져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一의 理致와 二의 陰陽 待對와 三의 역동

적인 생명 현실성의 원리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본체론이 온전하다는 것이다. 즉 1은 卽 道인데 無에서 有가 만들어지고 1은 2로 분화되니 陰과 陽이요, 2는 다시 3을 생성하니 陰과 陽이 서로 사귀면 화합이 되니 이 화합의 에너지는 沖氣가 된다. 따라서 3은 음양에 다시 沖氣를 가한 것이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sup>28)</sup>.

음과 양의 2분법만을 주장한다면 대립과 투쟁의 구도가 성립된다. 그러나 생명은 대립의 구도보다는 조화의 상태를 추구한다. 무한과 유한, 부류와 요원이 대립할 때 홀로그램과 같은 조화 에너지가 있어서 생명을 조절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는 이러한 조화 에너지가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화 에너지를 '충화지기(沖和之氣)'라 한다<sup>29)</sup>.

이와 같은 본체론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물음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동양철학에서 本體論에 대한 측정 도구는 '數'를 위주로 사용해왔다.

## 2) 實相論: 四五六

實相論이라는 것은 현실에 드러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세계이므로 時間과 空間 안에서 운동이 된다<sup>30)</sup>. 동양철학에서의 實相論에 대한 측정 도구는 干支를 위주로 이용해왔다.

문화적 측면의 넷(四)은 시간과 공간의 형태적 구성과 짝을 이루는 수적 구성을 표상하기 위한 상징수이다. 신화에서 네 개의 기둥으로 세계를 고정시키는 장면 등이 나오는데, 네 개의 기둥은 사상을 의미하는 형상물로 땅이 사각형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믿었던 세계상을 반영한다<sup>31)</sup>. 1년에는 春夏秋冬 四時의 구별이 있고 방위에는 東西南北 四方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4의 理인 것이다. 人體構成상으로 말하면 인체의 四肢가 分岐된 것과 안면에 耳目口鼻 四者 등이 4의 理로 된 것이다<sup>32)</sup>.

즉, 四象은 네 개의 이미지로 八卦의 구체적인 事物에 비해서는 형이상학적이다. 四象은 周易 관점에서는 太陽, 少陽, 少陰, 太陰의 太少陰陽으로 陰陽을 다시 太少로 분류한 것이다. 아직은 456중에서 근원적인 것이기에 공간적인 四方의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易學에서는 元亨利貞으로 표현한다. 한의학에서 四象醫學도 있지만 우선 구체적으로 天에서는 春夏秋冬 四季節을 뜻하고 地에서는 東西南北 四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즉 고정적인 틀을 제공한 것이다.

五行의 行은 一進一退하는 往來의 의미<sup>33)</sup>로 운동성을 의미한다. 五行은 木火土金水로 상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틀로서 사물의 운동규범을 보여준다. 五行은 '상수학의 삼재구조(表 1)'에서 한 가운데인 實相論의 '相'에 해당한다. 따라서 九宮 구조 내에서 中宮의 역할이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운행의 表現은 다섯 가지 권역의 相互 相生·相克의 生克制化로 드러난다.

28) 김경탁. 新譯 老子. 서울, 현암신서, 207, 1978.

29) 김병수. 하도와 러셀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 (3) :583-590, 2007.

30) 현대물리학에서 빅뱅이후에 시공간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시공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시세계, 즉 상대성이론이 적용되는 세계를 말한다. (저자주)

31) 리영순. 동물과 수로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훈민, 224-230, 2006.

32)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97-198, 1989.

33)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51, 1990.

24) 리영순. 동물과 수로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훈민, 206-212, 2006.

25)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97-198, 1989.

26) 리영순. 동물과 수로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훈민, 213-223, 2006.

27) 김경탁: 新譯 老子, 서울, 현암신서, 207, 1978.

六氣는 風寒暑濕燥火로 온도, 습도, 풍도 등 구체적인 감각이다. 이는 신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외부감각으로 四象, 五行에 비하여 표면적이다. 즉, 내부와 외부의 접촉면에서 작용되는 기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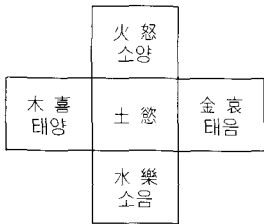
四象 五行 六氣도 역시 셋이면서 하나로 운용이 되는데 四象의 體가 있고 다음에 五行의 운행이 드러나며, 그 뒤 六氣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456이 실상계라면 연역과 발생적으로는 四象→五行→六氣의 순이었지만, 현실계에서 이해하는 순은 六氣를 처음 접하고 연구한 뒤, 五行을 이해하고 더 깊이 四象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3) 認識論: 七八九

456의 實相論은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四象(東西南北, 春夏秋冬)이 근간이 되었는데, 인식론은 변화무쌍한 감정을 뜻하는 七情이 體가 된다. 따라서 認識論은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이 된다. 喜怒哀樂愛惡慾 七情은 喜怒哀樂(四)<sup>34</sup>에 慾을 추가(五)한 뒤 사랑(愛)과 미움(惡)을 넣은 것이다(表 2).

表 2. 七情 배속



사랑은 감정의 크기를 크게 하고, 미움은 감정의 크기를 작게 한다. 즉 마음은 愛惡라는 감정을 위주로 확장과 수렴을 반복하여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은 중앙 土 자리에 있는 '慾'이다.

八卦의 卦는 걸 卦의 뜻으로 구체적인 事物로 표현된다. xyz축의 삼차원 공간 내에서 표현되며, 四震雷 五巽風 등 구체적인 우레, 바람 등의 物象이 붙는다<sup>35</sup>. 그러나 여기서 八卦는 七情의 體를 바탕으로 드러나는[相] 것이므로 무의미한 사물이 아니라 내부 감정과 동조하는 외부 사물이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슬프다는 七情이 바탕이 되기에 밖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八卦로 七情이 나름대로 時空化된 것이다. 감정, 생명 시간 공간 물질을 획득한 것으로 스스로의 운행력이 있다.

九는 九宮으로 中宮과 八方의 구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체[中宮]와 외부 환경[八方]의 복합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神과 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七情이 노는 바탕이 된다. 가장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象數易學의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認識論이라는 것은 본인이 파악하고 인식하는 세상이 각자

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관적이며 우연인 것 같지만 무질서하지만은 않는 세상을 보여준다. 양자적 세상이며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다.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가 합일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인식론을 측정하는 도구로 동양철학에서는 卦를 위주로 이용해왔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7, 8, 9를 위주로 분석할 수 있다<sup>36</sup>.

3. 四象·五行·六氣

本體論인 太極 陰陽 三才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접근 틀이므로 사실상 현실에서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다. 認識論에 해당하는 七情 八卦 九宮도 외부 객관적인 세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도구이므로 학문이라는 객관적 틀에서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삼원적 구조에서 오직 實相論에 해당하는 四象 五行 六氣가 객관적인 시공간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는 타자와 상호 교류가 용이하기에 학문적으로 구체화하기가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五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한의학 원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四象 五行 六氣의 셋이면서 하나로 어울어지는 삼원적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1) 四象에서 五行으로

四象이라는 4 자는 사각형이라는 뜻과 같아서 규격이 확실하며 또 不動性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象 자는 物形象이라는 뜻과 같아서 그것도 또한 固定的인 뜻으로 보아야 한다. 즉 四象이란 말은 不動的으로 四面이 구비된 물체와 같은 그 形象의 分別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五行은 圓形的이며 變動的인 뜻으로 보아야 하고, 또 行 자는 四象의 象 자와 對가 되는 자로써 한 固定한 物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無形하며 變動的인 그 性質로 보아야 한다<sup>37</sup>. 즉, 四象은 靜的이고 五行은 動的이다.

四象은 東西南北 春夏秋冬 등 四로 구비된 형태로 固定的인 것[體]이며 이것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中央에 中心이 잡히기 시작한다. 운행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중심점을 포함하여 五行으로 드러나는 것[相]이다. 四象과 五行의 발전과 후퇴를 한규성<sup>38</sup>은 4면이 中心을 얻으면 한 作用性으로 되고 또 중심을 내어 놓으면 한 不動의 형상이 된다고 하고 또, 四象과 五行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四象에다 中心인 生命處를 더한 것이 五行性이 되고, 中心을 여윈 것이 四象이라는 形象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2) 五行에서 六氣로

한동석<sup>39</sup>은 五行에서 六氣가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六氣란 것은 지구의 운동과정에서 五行의 質에 변화를 일으켜서 運動之氣가 하나 더 붙어나게 됨으로써 六種의 氣가 된 것인데 이것은 地球에만 있는 氣이다. 다시 말하면 五行이란 것은 虛空에 있는 五行 星團이 각각 자기의 光을 발사하는 바 이 光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五運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五運의 氣化作用이 지구 주위에 집중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이것이 六氣

34) 喜怒哀樂을 四方에 배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 배치는 드러난 형상을 위주로 배치한 것으로 희노애락이라는 순서를 그대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배치한 것이다.  
35) 김병수. 하도·낙서·선천팔괘·후천팔괘의 상호 유기적 관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2): 379-386, 2007.

36)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97-198, 1989(참조).  
37)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35-136, 1989.  
38)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37, 1989.  
39)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12, 1990.

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地軸이 기울어져 되는 것이다.

五運과 六氣의 차이점은 五運은 天氣로서 작용하는 무형의 조화기운이고, 六氣는 地氣로서 五運이 지구에서 현실화되어 작용하는 구체적인 기운이다. 우주의 모든 변화는 五運과 六氣의 勝負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지니 이를 天地運動이라 한다<sup>40)</sup>.

五行에서 相火라는 火 에너지가 하나 더 붙어서 六氣가 형성된다. 六氣는 風寒暑濕燥火로 윤길영<sup>41)</sup>은 온도 습도 풍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생물이 생존하려면 환경조건으로 온도 풍도 습도가 필요하고 이는 기후에 따른 것으로 기상의 六氣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 기후의 변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며, 인신은 이에 반응하여 내부기능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六氣라는 것은 인신이 외부 환경을 받아드릴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체 내에서도 외부 육기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에너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四象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회전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심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四象에 중심축이 추가되어 五行이 완성되고, 五行의 회전력이 계속 진행되면 열이 발생하여서 相火라는 열을 얻어 六氣가 된다. 공간적으로 보면, 六氣는 사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表裏 부분에서 주로 작용한다. 또한, 六氣는 三陰三陽으로 설명되는데, 五行에 비하여 陰陽이 균형을 이루기에<sup>42)</sup> 事物의 공간적인 표면에서 외부와 내부를 소통 작용하는 요소로 적용된다.

3) 四象·五行·六氣의 도형

하늘(一)은 원, 땅(二)은 사각형, 그리고 天地人 三界(三)는 삼각형의 구조로 이뤄졌다는 것은 동양의 신화적 사고이다<sup>43)</sup>. 그러나 456의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이며 구체적이기에, 시각적인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형은 地法에 해당하는 東西南北 四方(사각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四象을 근거로 五行이 발현되며 다시 五行의 운행으로 六氣가 발현된다.

四象은 4로 사각형이라는 뜻과 같아서 규격이 확실하며 또 不動性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44)</sup>. 四象이 회전하면서 中心이 생겨 五行이 되는데, 五行은 圓形的이며 變動的인 뜻이다. 六氣는 2×3으로 三이 陰과 陽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이라 한다. 三에 대해서는 필자의 '하도와 러셀역설'에서 삼각형의 형상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六氣의 도형은 삼각형 두 개가 맞물려있는 육방성(hexagram)이 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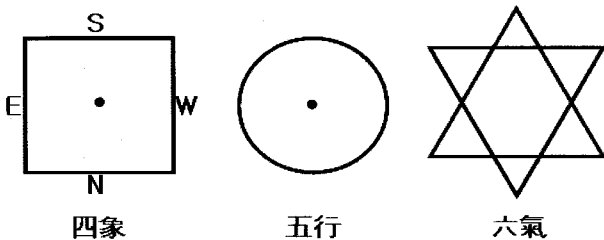


그림 1. 四象 五行 六氣의 도형

40)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일지사, 116-117, 2004.  
 41) 윤길영. 동의학 방법론적 연구. 서울, 성보사, 34-35, 1983.  
 42)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17, 1990.  
 43) 리영순. 동물과 수로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훈민, 224-230, 2006.  
 44)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35-136, 1989.

4) 五行의 중심과 六氣의 중심

이를 보면, 四象에서 중심이 생겨 五行이 되므로 五行의 중심 土는 나머지 木火金水를 중재하는 자리이다. 이는 철학적인 메타화된 자리이며, 부분과 전체에선 木·火·金·水를 각 부분(part)으로 보았을 때 土는 전체(whole)에 해당한다<sup>45)</sup>.

『醫學入門·臟腑總論』에 ‘凡十一臟은 皆取決於膽’을 설명하기 위해 “蓋風寒은在下하고 燥熱은 在上하고 濕氣는 居中호대 火獨遊行其間하야 以主榮衛而不息하나니 火衰則爲寒濕하고 火盛則爲燥熱이라”고 하여 膽이 中正之官 決斷出焉임을 서술하고 있다<sup>46)</sup>. 이는 風寒暑濕燥火 六氣 중에서 오직 火만이 상하를 유도하며, 火의 조절에 의하여 전체 六氣가 寒濕해지거나 燥熱해짐을 보여준다. 또, 膽은 六氣로 보면 少陽相火로 五行에서 추가된 相火에 해당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六氣에서는 火가 나머지 부분(part)에 비하여 메타화(whole)된 자리라 보여진다.

즉, 五行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한 相火가 추가되어서 六氣가 되었는데, 이 六氣에서 相火는 五行에서 土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六氣에서 相火는 부분과 전체 중에서 전체에 해당하며, 메타화된 자리가 된다<sup>47)</sup>.

5) 기존 한의학과 사상의학

이상과 같이 四象과 五行, 그리고 六氣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관 속에서 이해됨을 살펴보았다. 사상·오행·육기는 삼원적 구조로 객관적인 세계관인 ‘實相界’의 구조를 대변하며, 셋이면서 하나로 아우러져 있다.

기존 한의계는 五臟六腑와 五運六氣 등 五行과 六氣의 관점을 위주로 사용해왔다고<sup>48)</sup>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한의계에는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널리 퍼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四象醫學은 기존의 음양오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象數的 원리로 보면, 四象은 五行·六氣의 체계와는 다르지만 六氣와 五行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四象은 五行, 六氣의 상호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보다 확연히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적 이해는 三一的 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의학을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四象醫學도 기존의 五臟六腑 五運六氣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 속에서 四象醫學의 이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인식된다.

결 론

상수역학으로 우주 만물을 분석하는 틀을 삼원적 구조로 제시하였다. 1에서 9사이의 자연수는 삼원 구조로 분석되는데, 123이 본체론, 456이 실상론, 789가 인식론으로 보고, 147은 ‘體’로,

45) 김병수. 하도와 러셀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583-590, 2007.  
 46) 『醫學入門』이 『素問·五運大論』의 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한 곳이다. 홍원식 교. 정교 황제내경소문. 동의의학연구원, 서울, 237, 1985.  
 이천, 편주 의학입문. 서울, 대성문화사, 93, 1989.  
 47)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서울, 지식산업사, 352-358, 2005.  
 김상일은 여기서 자체권(ownership)과 소유권(ownership)으로 설명하고 있다.  
 48) 김완희, 김광중. 장부학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지사, 1, 7, 1996.

258은 '相'으로, 369는 '用'으로, 각각의 초중말이 縱橫으로 셋이 면서 하나로 아우러진다.

本體論에서 太極[-]은 體가 되며, 陰陽은 드러나는 相이 되고, 三才는 用이 된다. 實相論에서는 四象이 體가 되며, 五行은 드러나는 相이 되고, 六氣는 用이 된다. 認識論에서는 七情이 體가 되며, 八卦가 드러나는 相이 되고, 九宮이 用이 된다.

四象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회전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심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四象에 중심축이 추가되어 五行이 완성되고, 五行의 회전력이 계속 진행되면 열이 발생하여서 相火라는 열을 얻어 六氣가 된다. 또한 도형으로 보면 四象은 사각형, 五行은 원, 六氣는 육방성(hexagram)에 해당한다.

五行의 중심은 토가 되며, 六氣의 중심은 相火로 추정된다. 사상의학과 기존 한의학은 象數的 측면에서 상호 유기적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상·오행·육기의 삼원적 구조를 통해 한의학 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경탁. 신역 노자. 서울, 현암신서, 1978.
2. 김병수. 하도와 러셀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583-590, 2007.
3. 김병수. 하도·낙서·선천팔괘·후천팔괘의 상호 유기적 관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2):379-386, 2007.
4.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 해의. 서울, 지식산업사, 2005.
5. 김완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 1991.
6. 김완희, 김광중. 장부학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지사, 1996.
7.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서울, 소나무, 2006.
8.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서울, 일지사, 2004.
9. 廖名春 외.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10.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훈민, 2006.
11. 양력. 주역과 중국의학 上. 서울, 법민문화사, 1993.
12. 우실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서울, 소나무, 1998.
13. 우실하.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 서울, 소나무, 2005.
14. 윤길영. 동의학 방법론적 연구. 서울, 성보사, 1983.
15. 이정호. 정역연구, 서울, 국제대학부설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6.
16. 이천. 편주 의학입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17.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989.
18.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0.
19. 흥원식 교. 정교 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